

대만 학습자를 위한 한글 자모음 제시 순서 재 검토: 천지인 원리를 중심으로¹

최세훈*

1. 머리말

이 연구는 『훈민정음』의 천지인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글 자모 교수 방안을 소개하여 대만에서의 한글 자모 교육과 발음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체를 다루고 있다.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자소(字素)와 음소(音素)간의 대응이 직관적이고, 자모 결합을 통한 음절 조합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그 과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훈민정음의 기호 체계를 살펴보면, 자음은 인체의 발음 기관의 형상을 기호화했고, 모음은 소리의 변화과정을 시각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음성적 특성과 문자적 특성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의 한글 자모 체계는 구어와 문자 기호 간의 관계는 더욱 간결화됐으면서도 현대 한국인들의 발음 경향을 반영하도록 변모했다. 직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한글의 특성 덕분인지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이 구어와 문자기호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특성은 모국어 학습자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유용하겠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여전히 낯선 기호 체계에 불과할 뿐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후 외한교)에서 현행 자모 교육 순서를 재검토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재외 한국어 교사들에 의해 최근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외한교의 한글 자모음 교육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자모 교육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² 기존의 대학 부설 기관들의 교재를 살펴보면 현행 외한교에서 이루어

¹ 이 논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의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천지인 제자원리를 현대적으로 원용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초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다루는 국어사 연구와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천지인 제자원리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단순화하고 산업화하여 일상용도로 전용한 현대의 한글 문자입력체계와 유사함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2014년 서태평양 학술회의를 통해 미거한 필자의 논문을 검토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신 원로 교수님들과 해외 한국학 연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講師

² 뜻밖에도 19세기의 실학자 정약용의 교육학 비판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여유당전서』, 「천문평千文評」에서 초급 한자 학습 교재로서의 『천자문』의 어학 교재로서의 효용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정약용

지는 한글 자모음 교육 순서를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자음은 ‘ㄱ’부터 ‘ㅎ’까지 소개하고, 모음을 ‘ㅏ, ㅑ, ㅓ, ㅕ…’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모음 교수법은 어떠한 논리적 개연성을 전제하지 않고 단순 암기를 전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글 자모 체계의 제자원리의 논리적 흐름을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한글의 제자원리인 천지인 원리를 재해석하고 이를 원용하여 한글 자모 교육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모음 교육과 발음 교육을 통합하는 시도를 병행하여 초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발음 오류의 화석화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한글의 과학성에 입각한 한글 자모 교육 필요성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김슬옹(2001)은 그간 학계에 적지 않았던 ‘훈민정음/한글의 우수성’이란 민족주의적 담론을 지양하고, 한글이란 문자 체계의 과학성 자체에 주목하였다. 그는 한글의 과학성이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시대에 매우 효과적인 문자체계임을 역설하고 이를 살리기 위한 교육전략을 모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의 연구는 한글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정보화시대에서 한글 기호 체계의 효용성을 밝혀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제시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김지형(2007)은 한국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활용하여 한글 자모 교육과 발음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모음 교육의 순서를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입각하여 각각 계열화하고, 각각의 자모가 그 계열 내부에서 갖는 동일성과 차별성을 부각하여 교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외한교적 관점에서 기초 자모교육을 위해 15세기의 훈민정음 체계의 용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조음 기관의 위치에 따라 자음 교육의 순서를 재배열해야 한다는 것에서 기대되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중 대조 발음연구’가 최근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추이진단(2002), 조문우(2006) 등이 한·중 발음 대조연구를 통해 한중 자모체계에서 서로의 대응 관계에 주목했다. 최향란(2010)과 유정

은 『천자문』의 한자 교수체계는 ‘글자 구성의 원리’를 도외시 하고 있으며, 글자의 제시 순서 또한 분류학적으로 논리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하늘 천(天)-땅 지(地)’라는 대구(對句)를 통해 ‘우주의 구성과 배치’를 배웠다면, 다음 순서로는 ‘날 일(日)-달 월(月)’과 같은 분류 체계를 배우는 것이 논리적일 텐데, 천자문에서는 ‘하늘 천-땅 지’이후 갑작스럽게도 ‘검을 현(玄)-누를 황(黃)’이라는 색채 분류체계로 넘어가 버린다. 학습자의 사유체계와 기대심리를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교수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단순암기를 강요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때 정약용의 비판이 향하는 바는 교수 체계의 논리성이므로 한글과 한문간의 언어학적 차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2011), 황미연(2012) 등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분석하여 이 오류가 모국어의 간섭현상에서 기인한 것에 주목하고 발음 교정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했다. 변웨이샤(2013)는 모국어 간섭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모 제시 순서를 한·중 음운 체계의 유사성과 차이에 근거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앞선 논문들은 발음의 유사성에 집중하여 한글 자모체계의 계통적 변화상을 도외시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한교에 적용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집중하려 한다.

3. 기존 교재들의 한국어 자모음 제시 순서

이 장에서는 현재 대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의 초급 교재들의 자모 제시순서를 살펴본다. 한글 자모음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의 교재별 구성은 <표 1>에서와 같다. 대만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 1』의 경우 한글 자음의 제자원리가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그러나 제자원리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지 않고 자음 학습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서강대 교재의 경우에는 제자원리에 대한 별도의 소개가 없으며, 자모 제시 순서가 읽기 능력 향상에 있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을 특별한 설명이 없이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는 경음과 격음 학습을 잇달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차이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특징이 돋보인다. 위 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현행 한국어 자모 교육 현장에서는 한글 자모 제시 순서에 대한 특별한 함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1권에서조차 자모 학습에 관한 지면 할애가 매우 부족해 교사 개인의 경험과 자율적 교수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현장에서 자모 교육을 정교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교재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³
음운 제시 순서	한글 구성소개	한글 소개	자모 체계 소개
	↓	↓	↓
	자음 제자 원리 ㄱ(ㅋ), ㄴ(ㄷ, ㄹ, ㄴ), ㅁ(ㅂ, ㅍ), ㅅ(ㅈ, ㅊ), ㅇ(ㅎ)	한글 1: 아, 어, 오, 우, 으, 이 ㄴ, ㄷ, ㄹ, ㅇ	자음과 모음 1: ㄱ, ㄴ, ㄷ, ㄹ,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	↓
	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ㅟ, ㅡ, ㅣ	한글 2: 야, 여, 요, 유, 의 ㄱ, ㄷ, ㅂ, ㅅ, ㅈ	자음과 모음 2: ㅁ, ㅂ, ㅅ, ㅈ, ㅎ ㅑ, ㅓ, ㅕ, ㅟ, ㅠ
	↓	↓	↓
	모음 2: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한글 3: 에, 애, 외, 왜, 웨 ㅋ, ㅌ, ㅍ, ㅊ, ㅎ	격음: ㅊ, ㅋ, ㅌ, ㅍ
↓	↓	↓	
자음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한글 4: 애, 예, 위, 와, 워 ㄱ, ㄷ, ㅂ, ㅅ, ㅈ	경음: ㄱ, ㄷ, ㅂ, ㅅ, ㅈ	
↓		↓	
자음2: ㄱ, ㄷ, ㅂ, ㅅ, ㅈ		이중모음: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		↓	
받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근거 제시		받침: ㄱ/ㅋ/ㆁ, ㄴ, ㄷ/ㅌ/ㅍ/ㅊ/ㅌ/ㅎ ㄹ, ㅁ, ㅂ/ㅍ, ㅇ	

<표 1: 고려대, 서울대, 서강대, 교재의 자모 제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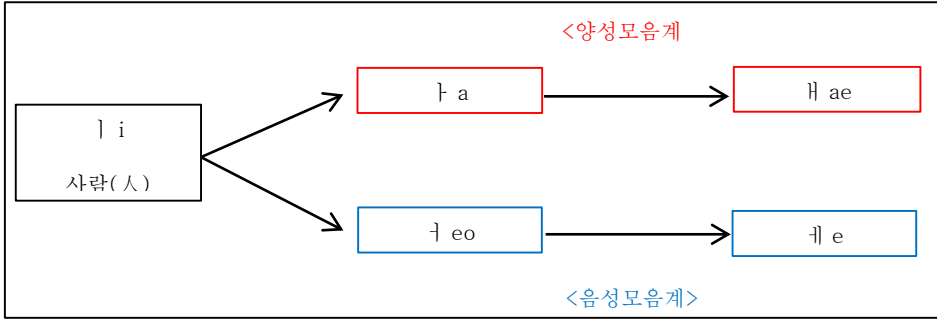
4. 천지인 제자 원리를 활용한 모음 교수 방안

4.1 단모음 교육 방안

외한교에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 모음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이다. 한국어의 모음은 스스로 단독 음절을 구성하여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음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도 교수할 수 있고, 학습자 또한 모국어의 발음과 대응하면서 한국어의 모음자를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모 교육의 순서는 먼저 모음 단독 음절(V)에

³ 서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는 2014년 중국어 번역 개정판이 출시될 예정.

서 자음-모음 결합 음절(CV)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음-모음-받침 결합 음절(CVC)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에 동의한다. 한편 <표 2>를 통해 PPT나 도표 등으로 제시하고, 모음의 기본자(基本字)-초출자(初出字)-재출자(再出字)로의 문자기호적 형태 변화 양상을 천지인 원리의 삼재(三才)인 하늘, 땅, 사람(•, 一, 丨)의 가획원리와 함께 설명한다.



<표2: ‘ㅣ’(人) 계열 단모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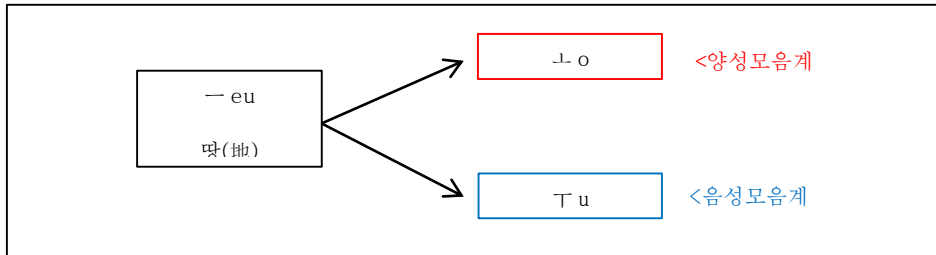
곧게 서 있는 사람(人)을 형상화한 수직형태 모음(Vertical vowel) ‘ㅣ’를 기본 모음자로 설정한 뒤 하늘(天)을 상징하는 ‘•’가 획의 모양으로 더해져 초출자가 되고, 다시 한번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 재출자로 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때 획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발음이 변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획의 위치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에 따라 양성모음(陽性母音)과 음성모음(陰性母音)으로 계열화된다는 것을 함께 지도한다.

위의 표를 통해 기본 모음 ‘ㅣ’에 가획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음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교사는 스스로 서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차려’ 자세를 하고 ‘ㅣ’의 발음을 지속적으로 발화하며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리와 모양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다음으로는 양팔을 뒤로 젖히면서 기쁨의 감정을 시청각화하면서 “아~”하고 말해본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양성모음이 비교적 밝고 가벼운 느낌의 소리임을 시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팔을 앞으로 내리면서 어두운 느낌의 소리를 “어~”하고 말해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성모음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소리임을 인지하게 된다.⁴ 이러한 전신반응적 교수법은 한국어 모음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직관적 지도법이며, 글자의 형상과 음성을 대입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같은 방법으로 ‘ㅏ’와 ‘ㅓ’의 차이를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표 3>을 통해 평평한 땅(地)을 형상화한 두 번째 기본 모

⁴ 김지형(2007) 또한 연상기법을 응용하여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가획이 오른쪽에 있을 때 양성모음이고, 왼쪽에 있을 때 음성모음임을 주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음 ‘ㅡ’를 소개한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평형태 모음(Horizontal vowel) ‘ㅡ’에 ‘ㅇ’가 결합하여 ‘ㅛ’와 ‘ㅜ’로 변하고, 가획의 방향에 따라 양성모음으로 계열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하늘(天)을 상징하는 ‘ㅇ’은 사실 태양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무리 없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상징하는 양성모음 ‘ㅛ’와 지는 해, 즉 ‘ㅜ’로 무리



<표 3: ‘ㅡ’(地) 계열 단모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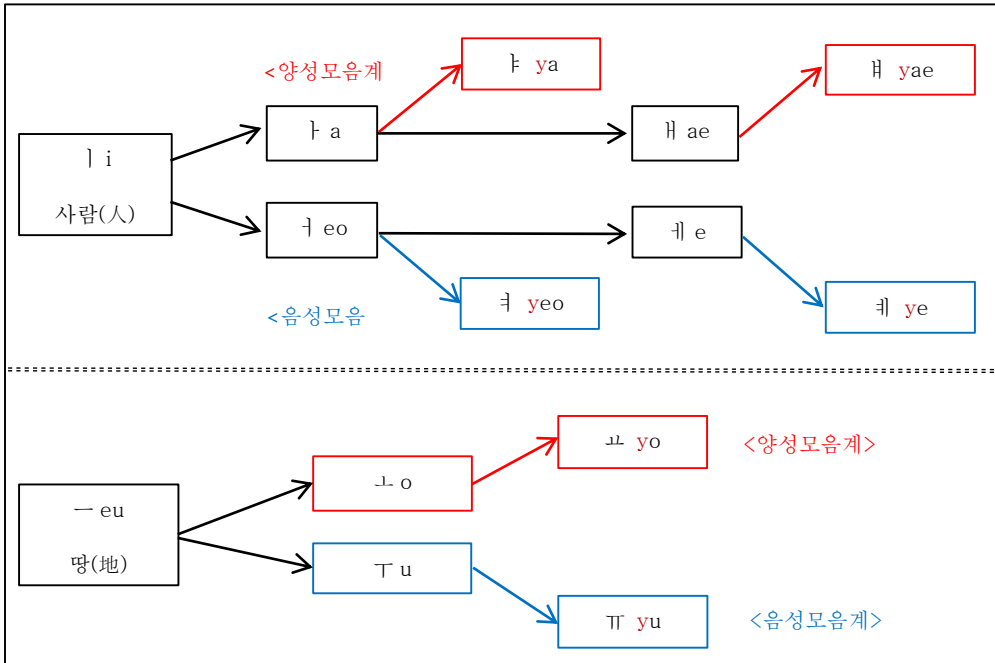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모음 ‘ㅡ’는 대만 학습자를 비롯한 많은 화어권 학습자들에게 무척 생소한 음가이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ㅣ’와 ‘ㅡ’간의 관계를 대조하여 짚고 넘어가면 매우 효과적이다. ‘ㅣ’와 ‘ㅡ’는 모두 비원순 고모음이지만 ‘ㅣ’는 전설모음이며 ‘ㅡ’는 후설모음이다. 두 발음의 차이를 전신반응 교수법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입에 연필 등의 도구를 물어 발음할 때 혀가 연필에 닿는 발음을 ‘ㅣ’로, 닿지 않도록 발음할 때 ‘ㅡ’로 실현됨을 강조하면 효과적이다. 한편 대만 학습자를 위해 주음부호의 ‘ㄆ, ㄗ’, ‘ㄘ, ㄔ’, ‘ㄌ, ㄙ’에서 자음에 해당하는 ‘ㄗ, ㄔ, ㄙ’를 제외한 모음 발음이라고 소개하거나, ‘ㄌ, eng, en’에서 종성 자음 ‘ㅇ’을 제외한 발음이라고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4.2 이중모음의 교육 방안

기본 모음자와 초출자를 교수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중모음상, 즉 재출자로 진도를 이행하면 논리적 연계성을 부여하기 좋다. 재출자 또한 양성/음성모음으로 계열화 된 아래의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 계열도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외한교에서는 복잡한 이론적 개념을 원용하여 교수하기보다는,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의 발음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Y계열 이중모음’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편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Y계열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국어교육에서는 반모음이 더해진 이중모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한교에서는 반모음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형태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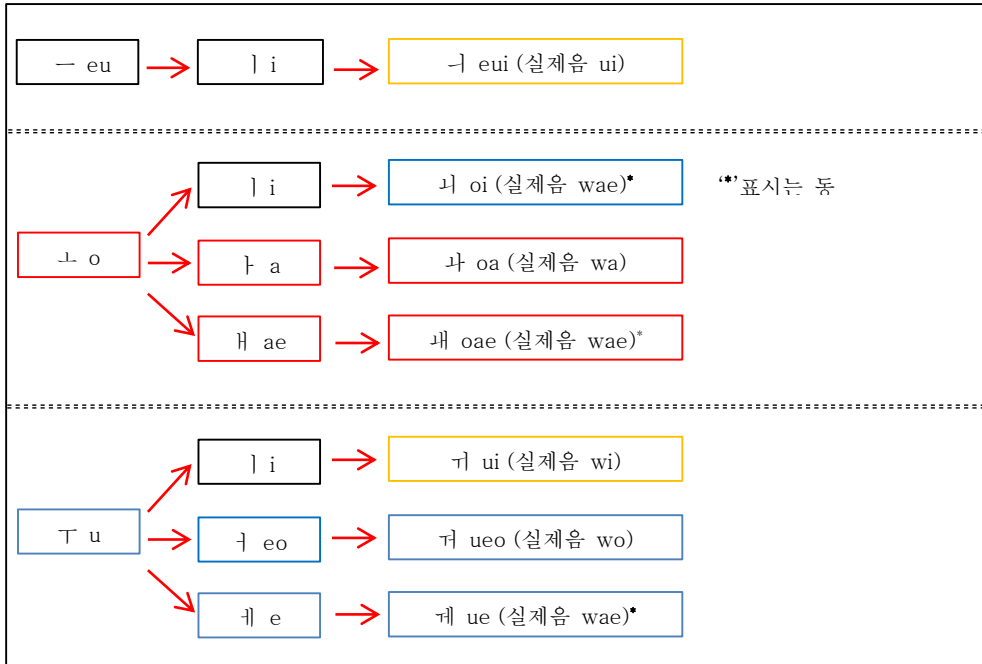
로는 기본자 단모음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 이중모음의 형태로 변화했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발음상으로는 양성모음계 이중모음, 음성모음계 이중모음으로 교수하도록 한다. <표 4>는 ‘Y계열 이중모음’의 발음상과 형태상의 논리적 흐름을 시각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한 장의 표로 수직 형태의 모음 ‘ㅣ’와 수평형태의 모음 ‘ㅡ’가 가획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Y’계열 이중모음표>

한편 병서원리가 적용된 ‘W계열 이중모음’은 형태상으로는 기본자 모음 ‘ㅡ’와 ‘ㅣ’가 조합된 형상이므로 제자원리를 교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모든 기본자가 서로 조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는 수평형태의 모음 ‘ㅡ’, ‘ㅛ’, ‘ㅜ’가 어떻게 수직형 모음 ‘ㅣ’들과 결합하여 이중모음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기본자 모음 ‘ㅡ’와 ‘ㅣ’는 중성계 모음 간의 모음조화의 원리로 실현된다. 또한 양성계 기본모음 ‘ㅛ’는 양성계 모음군 ‘ㅏ’, ‘ㅑ’와 결합됨을, 음성계 기본모음 ‘ㅜ’는 음성계 모음군 ‘ㅓ’, ‘ㅕ’와 결합됨을 역시 모음조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까닭에 ‘ㅛㅓ’, ‘ㅛㅕ’나 ‘ㅜㅏ’, ‘ㅜㅑ’와 같은 양성계 모음과 음성계 모음간 이중모음 조합은 불가능함을 이론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게 된다.

‘W’ 계열 이중모음을 교수할 때 주의할 점은 *표시가 있는 동음이형태(同音異形態) 발음들이다. 비록 형태상으로는 다르지만 현대 남한의 언중(言衆)의 발음상으로는 동일한 발음으로 실현되는 동음이형태 이중모음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교사에 따라 모음 ‘니’를 단모음으로 실현된다고 교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한교에서는 대체로 이런 문제가 발생 할 때 현재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발음으로 교수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니’, ‘내’, ‘네’의 발음상을 동일한 이



〈표 5: ‘W’ 계열 이중모음표〉

중모음 발음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도표들은 학생들에게 보조교재로 제공하든지 시험을 통해 빈칸 넣기 연습을 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 안에 암기하도록 한다. 특히 컬러를 이용해 양성모음은 붉은색 화살표를, 음성모음은 파란색 화살표를 이용하면 양성계/음성계의 구별도 무척 용이해질 것이다.

다음의 〈표 6〉은 대만의 학습자를 위한 한·중 모음 대응표이다. 한글 모음과 대만의 표음기호인 주음부호와의 상응관계를 보여준다. 아울러 동음이형태 모음들을 학습할 때 유의할 점을 함께 정리하여 학습의 편리를 고려하고 오류교정의 가능성을 높였다.

한글 모음	주음부호	주의사항
ㅐ	ㅐ	1. 'ㅐ'는 입을 비교적 작게, 'ㅑ' 입을 좀 더 크게 벌린다. 2. 'ㅐ'는 턱을 수직 아래로 벌리고, 'ㅑ'는 턱이 대각선 아래로
ㅑ		
ㅒ	ㅑ	1. 'ㅒ'는 'ㅑ'의 이중모음이다. 2. 'ㅓ'는 'ㅑ'의 이중모음이다.
ㅓ		
ㅕ	ㅕㅕ	
ㅖ	ㅕㅐ	현대 한국어에서는 발음상의 차이가 없다.
ㅗ		
ㅛ	ㅕㅑ	
ㅜ	ㅑ	원래 단모음이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복모음화[ㅕㅑ]
ㅠ	ㅑㅑ	

<표 6: 동음이형태 단모음 및 이중모음>

4.3 의의

위의 방식으로 한글 모음을 교수하면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교육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1) 모음자의 계열화를 통해 단순 암기가 아닌 연상 암기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천지인 원리를 통한 한글 자모 연상 암기법은 단순 암기에 비해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표음문자로서의 한글의 과학적 제자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한국의 음양오행설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문화수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양성계 모음과 음성계 모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시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대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어권 학습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모음의 변별 지점은 후설평순모음인 'ㅑ', 'ㅓ'와 후설원순모음인 'ㅕ'간의 차이인데, 이는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의 단모음 체계에서 후설평순단모음이 'e, ø'로 단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간 간섭(干涉)현상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ㅑ'와 'ㅓ'를 양성/음성모음으로 계열화하여 구분하면 각 발음간의 차이를 음성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식으로까지 상징화시켜 체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ㅓ'와 'ㅕ'는 개구도와 원순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학습현장에서 개구도 및 원순화의 정도만으로 학생들에게 두 음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학습자가 낯선 외국어의 음가를 학습할 때 혀의 위치, 개구도 및 원순화의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몹시 난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장의 모음도만 가지고 혀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올바른 발음을 습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쉽게 피로와 좌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ㅕ'와 'ㅓ'를 양성/음성모음으로 구분하면 발화자의 심리 속에서 'ㅕ'는 떠오르는

태양이 연상되고, ‘ㄱ’은 서쪽으로 지는 해가 연상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차이를 스스로 피력하려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⁵ 한편 한국인 화자도 구별하기 힘든 ‘ㄱ’과 ‘ㅋ’의 변별적 자질은 외한교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습자에게 양성/음성모음 계열화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쉽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용언의 활용을 교수할 때 모음조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외한교에서는 초급 단계의 용언의 활용을 교수할 때 어미 ‘-아-’, ‘-어-’, ‘-여-’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적 훈련을 실시하는데, 현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습서들은 모음조화 현상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학습자의 반복 숙달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 학습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경험상으로도 문장 형성 과정에 활용이 필요 없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방대한 용언 활용에 쉽게 압도되어 버리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용언의 활용에서 모음조화에 따른 어미활용 양상을 제시하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양성모음계 용언의 어미활용: ‘-아-’		음성/중성 모음계 용언의 어미활용: ‘-어-’	
가다 + -아-	가-	먹다 + -어-	먹어-
보다 + -아-	봐-	마시다 + -어-	마셔-
싸다 + -아-	싸-	크다 + -어-	커-
좋다 + -아-	좋아-	춥다 + -어-	추워-
...

<표 7: 용언 활용에서 모음조화를 통한 어미 활용 지도 예시>

지금까지 천지인 제자 원리를 원용한 한글 단모음 및 이중모음의 교수원리를 소개하였다. 특히 외한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모음의 변화상을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형태상의 변화를 발음의 변화상과 함께 교수할 수 있도록 교수 순서를 재배치함으로써 모음자의 형태와 발음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논문의 독창적 관점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간의 모음조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청각적 연상기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천지인 원리를 활용

⁵ 자연적 교수법을 주창한 크라센(Krashen)의 모니터 가설(the Monitor hypothesis)에 따르면, 학습자는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즉각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자기감시화 기간을 겪게 되고 부단한 시행착오 끝에 유창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양성/음성모음 계열화는 학습자로 하여금 낮은 외국어의 불확실한 발음 구분에 심리적 기준점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는 각각의 계열화된 음가간의 변별적 지점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부단히 자기감시화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한 자음자 지도법을 소개한다.

5. 천지인 제자 원리를 활용한 자음 교수 방안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천지인 제자원리에 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국어학적 관점에서 천지인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상의 모음 제자원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한글 자음을 천지인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겠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현대적으로 원용함으로써 현대 한글의 제자 원리를 가획과 병서의 원리로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 외한교 자모 교수 순서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이 천지인 원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문자부호 입력 체계인 천지인 조판 원리와 더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외국인들에게 한글 자판 입력법을 교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모국어 화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조판 체계이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자음의 가획의 원리가 매우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음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본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에 천(天)을 상징하는 ‘·’가 더해질 때 가획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교수한다. 예를 들어 ‘ㄱ’에 ‘·’가 더해지면 격음 ‘ㅋ’로 실현되며, ‘ㄴ’에 ‘·’가 결합해 ‘ㄸ’나 ‘ㄹ’로 실현된다는 가획 원리를 소개한다. 이때 실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한글 조판을 확대하여 보충재료로 사용하면 좋다.

5.1 초성 자음-평음 교육 방안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기본 자음자 배치 순서인 ‘ㄱ(기역)-ㄴ(니은)-ㄷ(디귤)-ㄹ(리을)-ㅁ(미음)-ㅂ(비읍)-ㅅ(시옷)-ㅇ(이응)’의 순서에 따라 교수할 것을 제안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통적 한글 초성/종성의 명칭 및 안배 순서는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제시된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이러한 자모 명칭을 초성과 종성에서 각각 발음되는 음가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한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배치 순서는 아직 유용한데, 사전 찾기 순서를 비롯한 일반 민중의 언어 생활에서도 전통적 ‘가나다라마바사...’의 교수법은 이질감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각각 자음자의 조음 위치에 따른 계열화를 위해서도 현행의 자음 교수 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자음-평음의 조음 위치와 이형태(異形態)의 단계에 따라 <표 8> 같이 분류하는 것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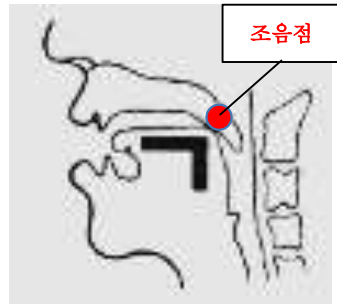
	기본형	1단계 이형태	2단계 이형태
연구개음계 軟口蓋音系	ㄱ [k]		
설음/치조음계 舌音/齒槽音系	ㄴ [n]	ㄷ [t]	ㄹ [l/r]
양순음계 兩脣音系	ㅁ [m]	ㅂ [p]	
치음계 齒音系	ㅅ [s]	ㅈ [tʃ]	
후음계 喉音系	ㅇ [ŋ]	ㅎ [h]	

<표 8: 자음-평음의 조음 위치별 이형태>

위의 표는 한글 자음-평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계열화하고 각각의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형태가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표이다.

5.2.1 연구개음 ‘ㄱ’ 교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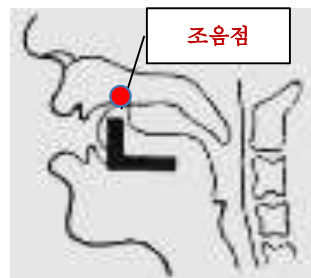
연구개 파열음 ‘ㄱ’은 초기 단계에서 한글 자음의 문자기호가 조음기관의 형상과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수 재료가 된다. 외한교에서 자음 교육 시 논란이 되는 것은 자음 단독의 발음을 어떻게 외국어 화자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음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자음자는 단독으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외한교 현장에서는 모음 ‘-’나 ‘-ㅏ’를 결합해 ‘그’나 ‘가’와 같은 하나의 음절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에서 사용되는 주음부호는 자음에 우리의 모음 ‘-’와 유사한 발음을 조합하여 ‘버퍼머퍼...’의 순으로 교육한다. 하지만 외한교에서는 ‘-ㅏ’와 결합해 제시하는 것이 이질감이 적다.



한편 초성 위치의 자음자와 중성 위치에서의 자음자, 즉 받침자를 함께 가르칠 것인지 혹은 따로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초성 자음에 비해 중성 자음은 불파음(不破音)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음점의 위치는 그대로이므로 가능한 함께 가르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각’, ‘그-극’을 함께 제시하여 초성위치에서의 자음발음이 어떻게 중성위치에서는 다르게 실현되는지 비교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5.2.2 설음/치조음계 ‘ㄴ, ㄷ, ㄹ’ 교수 방안

‘ㄴ, ㄷ, ㄹ’는 동일조음점에 따라 계열화하여 교수하기 좋다. ‘ㄴ’는 형태상으로 설음/치조음계 자음의 기본이 되는 자음이다. ‘ㄴ’은



혀끝, 즉 설첨(舌尖)이 치조에 닿아 비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지도한다. ‘ㄷ’은 조음 위치상 ‘ㄴ’과 같은 치조에서 실현되지만 혀가 설단(舌端)까지 닿아 파열음으로 실현된다. 이때, 자음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ㄴ’에 두 경을 해당하는 가획이 이루어져 ‘ㄷ’로 형상화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면 연상 기억효과가 탁월하다.

‘ㄹ’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실현되는 유음이므로 자음 ‘ㄷ’ 위에 탄설음 음가에 해당하는 ‘ㄹ’이 더해졌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나 많은 화어권 학습자들이 초성 위치에서의 ‘ㄹ’의 탄설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접근음인 ‘l’로 발음하거나, 아예 ‘ㄴ’으로 중성화하기도 하고, 중국어의 권설음 ‘r, ʁ’ 또는 ‘日’와 간섭을 일으켜 중국어의 설측음처럼 발음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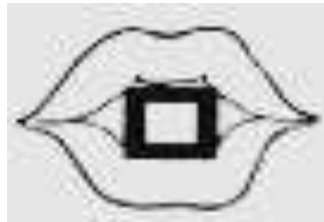
오늘[오닐]	커피를[커피늘]	나라를[나랄ㄹ]	불러요[부러요]...
--------	----------	----------	-------------

<표 9: 화어권 국가 학습자들의 ‘ㄹ’ 발음 오류 유형들>

‘ㄴ, ㄷ, ㄹ’은 종성의 위치에서 받침음으로도 실현되는데, ‘ㄷ’의 경우 불파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께 지도하여 ‘나-난, 느-는’, ‘다-단, 드-든’, ‘라-랄, 르-를’을 그 관계에 따라 익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한편 ‘ㄹ’은 초성의 위치에서는 탄설음[r]로 종성위치에서는 설측음[l]로 실현된다. 또한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중성모음+ㄹ’의 ‘ㄹ’ 발음을 ‘얼화운’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 ‘느’와 ‘를’은 초급 학습자도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어려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5.2.3 양순음계 ‘ㅁ, ㅂ’교수 방안

‘ㅁ, ㅂ’은 조음 방법상으로는 각각 비음과 파열음으로 실현되지만 조음 위치 및 문자 기호상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한다. 가획의 원리에 따라 형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비롯해 다른 자음자의 교수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마-맘’, ‘바-밥’과 같은 조음 방법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중성 발음을 가르치면 효과적이다.



5.2.4 치조음계 ‘ㅅ’와 경구개음 ‘ㅈ’의 교수 방안

학교 문법 및 전통적 국어학 연구에서 ‘ㅅ, ㅆ’는 치조음이며, ‘ㅈ, ㅉ, ㅊ’ 경구개음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치조음계 ‘ㅅ, ㅆ’과 경구개음 ‘ㅈ, ㅉ, ㅊ’를 같은 계열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계열음은 모두 혀의 끝부분이 거의 같은 조음위치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설음



계열이기 때문이다. 문자 기호의 형태에 있어서도 ‘ㅅ’과 ‘ㅆ’은 매우 유사하여 가획 원리로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다만 ‘ㅆ’의 경우에는 혀가 연구개에 닿아 치조음 ‘ㅅ’의 모양에서 두경이 더해진 과찰음 ‘ㅆ’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발음과 형태상의 원리를 통합하여 교수한다. 아울러 중성 위치에서는 비록 다른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따라 같은 발음[t]로 내파(內破)되어 실현된다는 것을 지도한다.

대만을 비롯한 화어권 국가에서 자음을 교육할 때 어려운 부분은 치음계 마찰음인 ‘ㅅ’과 경음 ‘ㅆ’의 차이를 정확하게 지도하는 것이다. 중국어의 자음 중 무성 치조 마찰음인 [ʃ, s']는 한국어 된소리 ‘ㅆ’와 음가상의 큰 차이가 없어 교수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한국어의 치음계 마찰 평음 ‘ㅅ’이 중국어에서는 ‘ㄊ’, ‘ㄷ’, ‘ㄴ’로 다양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중화권 학습자들이 ‘ㅅ’를 중국어의 치조 마찰음 [ʃ, s']로 강하게 발음하거나 권설 마찰음[ʃ, sh]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다. 대만학자 유연환(2012)은 ‘ㅅ’을 주음부호 ‘ㄅ’로 기재하되, 평음과 경음의 차이를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ㅅ’ 미기음(微氣音)으로, ‘ㅆ’은 경음으로 쓸 것을 제안했다.⁶ 대만인 화자의 모어에 존재하는 치조음 [ʃ, s']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식을 보이는 것이 ‘ㅅ’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평음 ‘ㅅ’과 경음 ‘ㅆ’의 음가를 영어에서 실현되는 것과 비교하면서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영어에서는 어두 또는 강세를 받는 모음 앞에서 ‘s’가 한국어의 ‘ㅅ’가 아닌 ‘ㅆ’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표 10>과 같은 영어의 자음의 대립을 통해서 충분히 ‘ㅅ’와 ‘ㅆ’의 변별적 차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Ski[스키]	Sorry[쏘리]	:	Shop[숍]	Sink[씽크]
---------	-----------	---	---------	----------

<표 10: ‘ㅅ’의 오류양상>

‘ㅅ’의 발음을 학습할 때 또 다른 형태의 오류가 관찰되는데, 바로 어두의 ‘ㅅ’에서 감지되는 기식성을 오해하여 아래와 같이 치조 과찰음인 [ʃ, c]나 ‘ㅆ’로 잘못 발음하는 현상이다.

사랑해요.	=> 오류형 ¹ [싸랑해요.]	오류형 ² [차랑해요.]
살아요.	=> 오류형 ¹ [쌀아요.]	오류형 ² [찰아요.]
손님	=> 오류형 ¹ [쑤님]	오류형 ² [쑤님]

<표 11: ‘ㅅ’의 오류양상>

한편 치조 마찰음 ‘ㅅ’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변이음이 다양하게 실현되므로, 각각의 예를 충분히 들어 가면서 교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⁶ 유연환은 한국어의 ‘평음-경음-격음’의 관계를 대만인 학습자에게 좀더 분명히 인지시키기 위해 ‘사격발음학습법(四格發音學習法)’을 제안했다. 그는 평음을 ‘미기음(微氣音)’과 ‘불송기음(不送氣音)’으로 나누어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를 두고자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경음과 평음의 차이도 분명하게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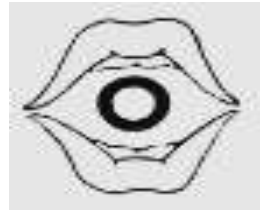
‘ㅅ’는 모음 ‘ㅏ, ㅑ, ㅓ, ㅕ’와 ‘ㅓ, ㅗ’에서는 변이음의 생기지 않거나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중성계 전설 모음 ‘ㅣ’와 이중 모음 앞에서는 대부분 구개음화되어 [c], [ʃ], [s^w]로 실현된다는 것을 지도한다.

‘ㅅ’의 기본 발음	‘ㅅ’의 변이음 실현
사랑해요	시간[c]
사과	시어요/셔요[c].
서울	쉬어요[ʃ].
서쪽	슈퍼맨[s ^w]
새집	수원[s ^w]
세월	쇠고기[s ^w]

<표 12: ‘ㅅ’의 기본 발음과 변이음>

5.2.5 후음계 ‘ㅇ, ㅎ’ 교수 방안

초성 자음 ‘ㅇ’은 단독 발음으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외한교에서는 모음자를 가르칠 때 울림소리 ‘ㅇ’를 모음자와 함께 교수하여 음절 조합의 원리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같은 계열의 ‘ㅎ’를 ‘자음-평음’으로 계열화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ㅎ’는 비교적 강한 기류가 인두를 마찰하면서 거센소리를 내는 기식성 성문음이기 때문에 이를 평음으로 분류하면 학습자들이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적지 않은 수의 언중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ㅎ’ 약화 습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환영합니다[환영압니다]’에서와 같이 어두의 ‘ㅎ’에 비해 두 번째 ‘ㅎ’ 소리값의 마찰 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거나, ‘제 전화번출니다[제 전화번웁니다].’에서처럼 ‘ㅎ’의 소리가 유성음에 가깝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 올해 스물아홉이에요[올애 스물아웁이에요].
- 대단히 감사하입니다[대단이 감사알니다]

<표 14: ‘ㅎ’음의 약화 현상>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및 표준 발음법에서는 ‘ㅎ’탈락은 오직 용언 어간의 끝소리인 ‘ㅎ’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에만 인정되지만 외한교에서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한국어의 사용이 표준 발음법에 의해 지배되지 않아 개인적 습관, 사투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한국어 의사 소통 환경에서는 ‘ㅎ’의 소리값 약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5.3 경음계 자음 격음계 자음 교수 방안

평음 자음을 기본자로 삼아 이에 대응하는 경음계 자음 및 격음계 자음을 함께 제시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평음계 기본 자음에 병서의 원리와 천지인 가획의 원리에 따라 경음 형태와 격음 형태로 제자되었다는 점을 지도한다. <표 15>의 관계도는 자음이 조음되는 위치에 따라 각각 연구개음계, 설음/치조음계, 양순음계, 치음계, 후음계로 나뉘며, 발음이 출현하기까지의 폐쇄 지속 시간과 음의 고저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계열화하였다.

		연구개음계	설음 · 치조음계			양순음계		치음계		후음계	
평음	짧은 폐쇄 지속성	ㄱ (g/k*) [k]	ㄴ (n) [n]	ㄷ (d/t*) [t]	ㄹ (r/l*) [l/r]	ㅁ (m) [m]	ㅂ (b/p*) [p]	ㅅ (s) [s]	ㅈ (j) [tʃ]	ㅇ (ng) [ŋ]	상대적 저음
	긴 폐쇄 지속성	ㄱ (kk) [k']		ㄷ (tt) [t']			ㅂ (pp) [p']	ㅅ (ss) [s']	ㅈ (jj) [tʃ']		
격음	높은 기식성	ㅋ (k) [kʰ]		ㅌ (t) [tʰ]			ㅍ (p) [pʰ]		ㅊ (ch) [tʃʰ]	ㅎ (h) [h]	매우 높은 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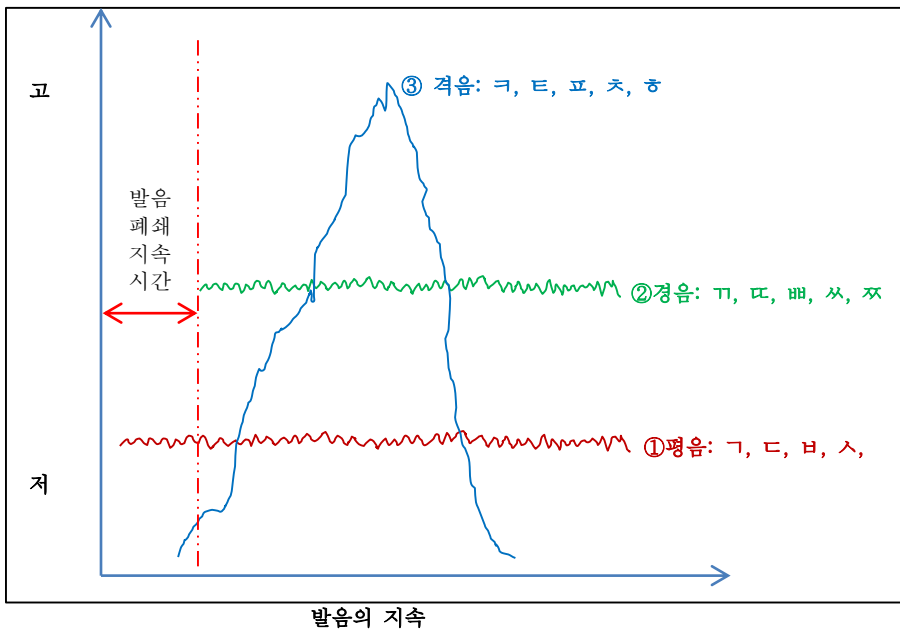
1. () 안의 로마자는 2000년 7월 고시된 문화관광부 로마자 표기법.
2. *은 중성의 위치에서 실현되는 로마자 표기법
3. [] 안의 기호는 원래 소리에 가까운 한글 자음 발음을 나타냄. [']는 된소리를, [ʰ]는 거센소리를 표시.

<표 15: 한글 자음 평음-경음-격음 관계도>

전 세계 외한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평음-경음-격음’의 차이를 교수하는 것이다.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는 매우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연속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의 형태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ㄱ-ㄱ-ㅋ’와 같은 변별적 음

소 단위를 완벽하게 지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앞의 관계도를 이용해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변별적 자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익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표 16>과 같은 파형 분석도를 제시한다. 파형 분석도는 경음과 격음의 주된 차이를 음의 상대적 고저와 음의 지속 시간에 따라 나누고 있다. 아울러 발음이 실현되기 이전 나타나는 발음 폐쇄 구간의 시간에 주목한다.⁷ 평음은 조음까지의 기관 폐쇄 길이가 매우 짧은 반면 경음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이는 된소리를 조음하기 위한 관련 조음기관의 긴장도와 긴밀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 반면 격음은 경음에 비해서는 발음 폐쇄 구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약간 짧지만 평음이나 경음에 비해 훨씬 높은 음조를 띤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음에 비해 경음은 상대적으로 고음인데다가 음의 폐쇄 지속성이 길며 발음 기관 간의



<표 16: 평음-경음-격음 파형 개념도>

접촉 단면도가 넓게 실현되며, 반면 평음에 비해 격음은 아주 높은 고음이 강한 기류와 함께 폭발적으로 생성되며 평음 및 경음에 비해 발음 지속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시청각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쌓인

⁷ 김효숙(1997)은 ‘오바’와 ‘오빠’의 ‘평음-경음’ 자음 폐쇄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결과 자음의 폐쇄 지속 시간이 40ms일 때까지는 ‘오바’와 ‘오빠’의 차이가 불분명했지만 120ms가 넘어서면서 ‘오빠’로 인식되기 시작한다고 증명했다. 한편 이상직(2007)은 파열음 폐쇄구간의 평균길이를 분석한 실험에서 경음의 폐쇄 지속 시간이 평음에 비해 두 배 이상 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음운론의 이론적 배경은 발음연습을 하는 동안 강한 자기 모니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5.4 음소 위치에 따른 변이음의 교수 방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 문법에서는 무성음(無聲音)과 유성음(有聲音)의 변별적 차이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외한교 현장에서는 어두의 ‘ㄱ, ㄷ, ㅂ, ㅈ’의 변이음 현상이 항상 문제가 된다. 많은 언어권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변별적 자질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음소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변이음이 자주 실현되는 언어를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쉽게 혼란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초급 학습자에게 유성/무성음의 변별적 자질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음소에 놓인 환경에 따른 유성음화(有聲音化) 현상들을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화어권의 외한교 현장에서 유성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일반적 원인은 한글 자음의 로마자 표기가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값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초래된다. 한국어의 자음 ‘ㄱ, ㄷ, ㅂ, ㅈ’은 성대의 울림을 수반하지 않는 무성음이며, 이를 국제 음성 기호로 표시하면 ‘k, t, p, s, ʃ’로 실현된다. 그러나 현행 문화관광부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이를 ‘g, d, b, j’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ㄱ, ㄷ, ㅂ, ㅈ’의 실제 음가가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구분하기 어렵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이들 자음이 모음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유성음화 되므로 같은 글자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 대표적 오류 현상은 초급단계의 학생들이 듣기 평가나 받아쓰기를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오류로서, 어두에 오는 무성 자음의 약한 기식성 때문에 ‘ㄱ, ㄷ, ㅂ, ㅈ’의 발음을 평음이 아닌 격음으로 오해하는 현상이다. 만일 교사가 어두에 위치한 무성자음 ‘ㄱ’에서는 약한 기식성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지도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가구’의 발음을 ‘카구, 까구, 가꾸, 가쿠’의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교사가 제시한 한글/로마자 표기법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실제 발음
가구[gagu]	카구[kagu]
다도[dado]	타도[tado]
부부[bubu]	푸부[pubu]
자주[jaju]	차주[chaju]

<표 16: 로마자 표기법과 실제 발음간의 괴리>

이러한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문화관광부의 로마자 표기법

이 실제 음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로마자 표기법 옆에 실제자음의 음가를 표기해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유성음화가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해 설명해 준다. 한국어에는 다음의 유성음화 조건이 나타난다.

<p>1. 모음 + ‘ㄱ, ㄷ, ㅂ, ㅈ’ + 모음 가구[kagu], 도둑[toduk], 바보[pabo], 자전거[chajeongeou]</p> <p>2. 받침 ‘ㄴ, ㄹ, ㅁ, ㅇ’ + ‘ㄱ, ㄷ, ㅂ, ㅈ’ + 모음 안개[ange], 얼굴[eolgul], 임금[imgeum], 공부[Kongbu]</p>

<표 17: 유성음화의 조건>

중국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로 의미를 구별하는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어권 화자에게서 관찰되는 발음 상의 오류는 유성음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음 ‘ㄱ, ㄷ, ㅂ, ㅈ’를 격음으로 오해하여 ‘ㄱ, ㄷ, ㅂ, ㅈ’로 이해하거나, 평음을 경음으로 간주하여 ‘ㄱ, ㄷ, ㅂ, ㅈ’로 오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유성음화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을 강조하여 음소가 놓이는 환경에 따른 차이로 단순화하여 교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두 번째 유성음화의 조건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6. 결론

지금까지 한글 자모 제시 순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천지인 원리를 현대적으로 원용한 새로운 자모 교수 방안을 소개해보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전통적인 학교 문법이나 국어학과는 많은 점에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일반적 개론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는 지역 맞춤형이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한글 자모에 익숙하지 않은 화어권 학습자를 위해 한글 자모의 형태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천지인 원리에 기초한 자모 학습 방안을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지인 원리는 자모음을 문자 기호의 형태와 조음 위치를 계열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모음의 경우 양성/음성 모음으로 계열화하여 익히면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기억에 도움이 되며, 자음의 경우 체자 원리와 발음을 일치하여 기억할 수 있어 지도와 학습에 유용한 점이 많다. 종성 위치의 자음 발음과 음운 변동에도 이러한 계열화된 교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좋지만 지면의 한계상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 기회를 빌어 종성 자음의 교수방안과 음운변동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지난 3년간 대만에서 자모음 단계의 초급 학습자를 위한 쉽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많은 교사들에게 검증되고 더 다듬어진 후 화어권 학습자들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석연(1997), 「훈민정음의 음성과학적·생성적 보편성에 대하여」,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pp. 181~208.
- 김정우(2005),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99~129.
- 김지형(2007),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자모 및 발음 교육 방안」, 『국어국문학』 147, pp. 221~258.
- 김효숙(1997), 「모음사이의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분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3·34, 대한음성학회, pp. 1~10.
- 박기영(2007), 「국어 음운론 지식과 한국어 발음 교육의 상관성에 대하여 - 모음, 자음의 기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1, 어문연구회, pp. 467~489.
- 범류(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ㄹ’ 발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연환游娟鑽(2012), 『我的第一堂韓語發音課』, 瑞蘭國際.
- 양순임(2003), 「유기음화와 관련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제22호, 이중언어학회, pp. 225~240.
- 유정(2011),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발음오류 양상과 교육방안 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 이상직(2007), 「파열음 폐쇄구간과 국어 경음의 기저구조」, 『언어연구』 제23권 2호, 한국현대언어학회, pp. 269~286.
- 왕단(200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한국어 발음 교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pp. 183~210.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pp. 259~280.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pp. 211~228.
- 조문우(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순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21, 중국어문학회, pp. 368~385.
- 최향란(2010),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오류 교정방안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 추이진단(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지도법: 입문 단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pp. 312~346.
- 황미연(2012),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발음 오류와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허용·김성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Reconsidering the Presentation Order of Hangeul for Learners in Chinese-Speaking Countrie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Principal of Cheon-Ji-In

Se-hoon Choi

The study reconsiders the current presentation order of the Korean alphabet for Korean learners in Chinese-speaking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learning experiences. Although Hangeul is known for its homorganic feature between letter design and sound from its inventions, it remains unclear if featural principles can be put to good use in real classrooms in the Chinese-speaking world.

In this paper, I will propose a new instructional methodology for teaching Korean vowels and consona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가획(kahoek, Adding a short stroke)’ and ‘병서(byeongseo, positioning two characters)’. I will adopt the principle of Hun Min Jeong Eum to explain how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can be possibly regrouped by its own homorganic system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heon, Ji, In’, which represents the ways of transcribing additional sound value. To propose a more efficient presentation order for Korean vowel, I argue that we can teach Korean vowels in the following sequence: first, the basic vertical / horizontal vowel; second, the diphthongs, iotized vowels, and third, compound vowels with a ‘w’. In doing so, we may offer better learning experiences for Korean vowels.

As for teaching consonants, I will rearrange the consonants based on its five homorganic groups, namely velar, coronal, bilabial, sibilant and dorsal consonants. I shall demonstrate how this new sorting order can prove to be effective and learner friendly. In the final part of this paper, I will provide a useful table for a compare and contrast between ‘Simple-Aspirated-Tense consonants’. This table arguably shows how we can distinguish the three confusing pronunciations for Taiwanese and Chinese students.

핵심어Keywords: 한글(Hangeul), 한글 제자원리(The principal of Hangeul creation), 한글 자모교육(Education for Korean alphabet), 제시 순서(Presentation order)